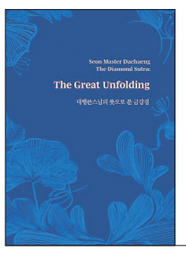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5~2/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붓다의 향훈을 따라서: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	대연스님 지음	해조음	6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개정2판)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2	불교입문(조계종 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대원불교학술총서25) 유가행파 수행론의 근거와 목표	안성두	운주사
3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8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불경(SUTTA)	이중표 편역	불광출판사
5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 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책세상

대행 선사 '뜻으로 푼 금강경' 영어로 읽는다



The Diamond Sutra:
The Great Unfolding
한마음국제문화원 편찬
한마음출판사 펴냄
2만5000원



한마음국제문화원 韓英대조본
10년여 번역불사 통해 발간
영어권 불자에 전법 가능해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 스님은 만법이 둘이 아닌 한마음 이치와 도리를 확실히 체득(증득)하신 분으로 금강경의 교의를 스님만이 구사하시는 어문으로 호방하면서도 자유롭게 풀어내셨던 실천적 수행자였습니다. 대행 스님이 남긴 〈뜻으로 푼 금강경〉의 영역은 전 세계에 많은 내면의 심적 내적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량한 감로수 같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17년 〈뜻으로 푼 금강경〉의 독경을 녹음했던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최근 방영된 TV다큐멘터리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사진)는 일반 대중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경전을 뜻으로 풀어 전했다. 대행 선사가 전했던 한글 뜻풀이 금강경이 국내 최초로 영어로 번역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산하 한마음국제문화원(팀장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을 영역한 책 〈The Diamond Sutra: The Great Unfolding〉(한마음출판사)이 한영(韓英)대조본으로 출간됐다"고 밝혔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선사의 원적 후 10년 동안 번역 불사를 진행해 왔으며, 대행 선사 탄신 98주년에 맞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글로벌 시대에 한마음국제문화원의 번역 불사는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와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he Diamond Sutra: The Great Unfolding〉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즉시 구매가 가능하다.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대승불교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독송돼온 경전으로, 반야의 지혜와 대자유인의 깨달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이기도 하다. 이번 영역본은 대행 선사가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1993년에 마무리한 〈뜻으로 푼 금강경〉 자필 한글원문을 근간으로 했다.

대행 선사는 '불교의 세계화'에 대해 이 같이 설한 바 있다.

"해외에도 정신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이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인 제자 청고 스님은 "큰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을 영어권 불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스님이 생전에 활발하게 펼치신 해외 포교의 길을 계승하고, 한국 불자들에게도 큰스님이 간명한 한글로 뜻풀이한 〈금강경〉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고 한영대조본 기획의 배경을 밝혔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간이 가능했던 것은 큰스님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강경이 알려주는 궁극의 도리인 한마음의 진리를 몸소 깨닫는다면 대자유인이 되어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출간의 의의를 밝혔다.

대행 선사는 일찍이 불교경전의 한글화 작업의 시급성을 인식했다. 1970년대부터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뜻으로 풀어 내놓음으로써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섰다. 일상적인 언어로 뜻 풀이된 경전들은 불자들이 독송과 동시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행 선사는 현대 한국 불교계에서 최초로 예불시간에 한문 독경 대신 한글 독경을 도입한 선구자이다. 선사의 뜻에 따라 한마음선원에서는 1988년부터 예불 시간에 한글 뜻풀이 경전을 독송하기 시작하며 한글 독경 보급을 이끌었다.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은 기존의 금강경 주석서나 해석서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해석으로 평가받는다.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다가 다시 한문으로 번역되며 그 뜻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금강경〉이 선사의 뜻풀이를 통해 단순한 문자 번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전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살려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영역작업을 통해 〈금강경〉은 매우 쉽고 명쾌한 영어 단어들과 문장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경전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독자들이 불교 가르침에 다가갈 수 있는 지평을 넓혀준다. 신간은 대우주의 진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한마음의 이치임을 보여주며, 안심 법문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일체 물질세계는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당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음이라.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내면에 놓고 관할지어다."

—〈뜻으로 푼 금강경〉 310페이지

대행 선사는…

1927년 서울 이태원에서 태어난 대행 선사는 1950년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한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산하를 유랑하며 10여 년간 수도 정진했다.

치악산 견성암에 머물며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현하던 대행 선사는 강원도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1960년 사미니계를 1961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닥쳐오는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지켜봄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한마음 주인공 관법(觀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1971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한마음선원의 전신인 대한불교회관을 세웠다.

대행 선사는 1982년 조계종 제1교구직할사암으로 등록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으로 개칭하고 선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30여 년 넘게 한마음선원에 주석하며, 크고 작은 법회에서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기와 여건에 맞추어 답을 해주며 불법의 진리를 가르쳤다.

포교대중화에 앞장선 대행 선사는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글 뜻풀이 경전의 보급, 법문의 영상 매체화,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 현대불교신문 창간,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편들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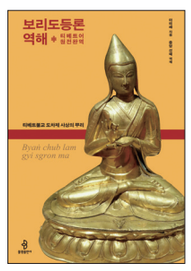
선사 또한 4개 국어로 번역된 법문집 출간 등을 통해 전법의 발걸음을 세계로까지 넓혀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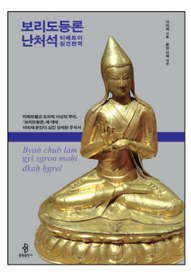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이었던 대행 선사는 2012년 5월 22일 오전 0시경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법랍 63세, 세납 86세로 원적에 들었다.



밀교 수행 원리의 요점만 가려 모은 티베트불교의 수행 교재
『시이꾸쑴랍쌜된메(因位三身行相明燈)』
바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 원리의 전모를 밝히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경론 번역에 매진 중인
중암 스님이 빚어낸 티베트불교 수행 비법의 모든 것
티베트불교는 현교와 밀교로 양분한다. '겉으로 드러난 가르침'인 현교는 소승과 대승불교를 가리키고, '은밀하게 전수된 가르침'인 밀교는 금강승(金剛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교를 어느 정도 익힌 수행자는 밀교인 금강승 수행에 들어간다. 현생에서 삼신(법신·보신·화신)을 모두 성취하여 보다 많은 중생을 빨리 제도하기 위함이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면서 수행과 티베트어 경론 번역에 매진해온 중암 스님이 『시이꾸쑴기남샥랍쌜된메』의 티베트어 원전을 충실히 옮기고, 그 의미를 풀어내어 금강승 수행 비법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밀교의 성불 원리 이번 생에 바로 성불하는 티베트불교의 수행법
중암 선혜 역해 | 436쪽 | 양장 | 값 35,000원
출간 즉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국내 최초 티베트어 원전 완역으로 만나는 티베트불교의 정수!


개정 완역
티베트 사자의 서
빠드마쌈바와 지음
중암 선혜 역주
594쪽 | 양장
25,000원


티베트어 원전 완역
보리도등론 역해
아띠샤 지음
중암 선혜 역해
368쪽 | 양장
25,000원


티베트어 원전 완역
보리도등론난처석
아띠샤 지음
중암 선혜 역주
592쪽 | 양장
40,000원